

전기전자

배당 매력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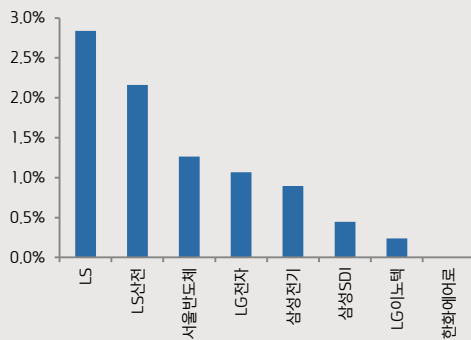
전기전자 업체들은 올해 실적 둔화로 배당 여력이 축소되었지만, 변화된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대부분 지난해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속 성장을 위해 배터리, 멀티 카메라모듈, 패키지 기판을 중심으로 투자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 주가에서 배당수익률은 LS, LS산전, 서울반도체, LG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LG이노텍 순으로 예측된다.

전기전자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주요 전기전자 업체 예상 배당수익률



>>> 올해 배당 여력 축소 불구 대부분 배당금 유지 전망

전기전자 업종 10개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5.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인 배당 여력은 축소되었지만, 주주친화적 정책 기조,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연기금 배당 요구 강화 등을 감안해 대부분의 주요 업체들이 지난해 수준의 주당배당금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기전자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멀티 카메라모듈, 패키지 기판, 전장 부품 등을 중심으로 지속 투자가 필요한 상태다. HDI, LED 등 한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은 내년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 배당수익률은 LS, LS산전, 서울반도체 순일 듯

현재 주가에서 배당수익률은 LS(2.8%), LS산전(2.2%), 서울반도체(1.3%), LG전자(1.1%), 삼성전기(0.9%), 삼성SDI(0.4%), LG이노텍(0.2%) 등의 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 10개 사 중 올해 배당금을 상향할 업체는 없어 보인다.

LS 그룹 계열사들이 일관되고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LG 그룹 계열사들도 지난해 모처럼 배당금 증액을 통해 변화된 성향을 보여줬다.

전기전자 주요 업체 예상 배당금

종목명	주당배당금(원)				EPS	영업이익	12/4일	예상
	2016	2017	2018	2019E	증가율(%)	증가율(%)		
LG전자	400	400	750	750	-36.9	-1.0	70,300	1.1%
삼성SDI	1,000	1,000	1,000	1,000	-18.0	-35.4	224,000	0.4%
삼성전기	500	750	1,000	1,000	-4.6	-31.4	111,500	0.9%
LG이노텍	250	250	300	300	20.5	32.4	125,500	0.2%
서울반도체	81	183	284	170	-30.6	-47.6	13,450	1.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	0	0	0	273.6	247.2	38,000	0.0%
LS	1,250	1,250	1,250	1,250	-60.2	-12.8	44,050	2.8%
LS산전	800	1,100	1,200	1,100	-2.5	-14.2	50,900	2.2%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배당 관련 회사별 동향

배당 정책과 관련한 회사별 동향을 정리해 보면,

▶LG전자는 지난해 5년 만에 주당배당금을 750원으로 상향했다. 역대 최고 실적과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올해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3분기 말 연결 순차입금은 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YoY -3%) 줄었고, 부채비율은 170%다.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배당 주체인 본사의 이익 규모는 제한적인 만큼, 올해 배당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당배당금은 750원으로 유지될 것이다.

▶LG이노텍은 올해 전기전자 업체 중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한계 사업 효율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순이익 증가폭은 제한될 것이다.

내년에도 신규 3D ToF Trend에 대응하기 위해 광학솔루션 위주로 CAPEX를 늘릴 예정이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원을 예상한다.

HDI 사업 중단 발표에 따라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삼성SDI는 ESS 관련 선제적 안전성 강화 조치에 따라 4분기에 2,000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연간 영업이익도 35%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중대형전지 위주로 2조원 남짓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재원은 대부분 자체 현금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사에 대한 배당 기대는 낮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지난 5년간 유지해 온 1,000원을 예상한다.

▶삼성전기는 MLCC 업황 악화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31% 감소할 전망이다.

영업외적으로도 4분기 기판 사업 효율화 비용이 예정돼 있다. 다만, 내년에는 설비투자 금액이 1조원 미만으로서 올해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MLCC는 천진 공장 기계장치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천진 공장은 업황을 주시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것이다.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원을 예상한다.

▶서울반도체는 2017년부터 대폭 상향된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LED 업황 악화와 업계 재고조정 지연에 따라 영업이익이 48% 급감할 전망이다. 베트남 설비 이전이 일단락돼 내년 투자 부담은 완화될 것이다.

올해도 배당성향 26%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당 배당금은 170원을 예상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규모 RSP 비용으로 인해 별도 기준 손실통과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배당 재원이 부족할 것이다. 4년째 무배당이 예상된다.

항공엔진부품 LTA(장기공급계약) 사업의 수주의 질이 개선되며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가 긍정적이다. 내년에는 별도 기준 손익분기점을 향해 갈 것이다.

▶LS는 연결 실적과 무관하게 8년째 주당 1,250원을 유지했고, 9년째 동일할 것이다.

배당 재원은 지주사 별도 기준 실적을 근거로 하며, 배당금수익, 브랜드수수료수익 등에 기반해 안정적이다.

연결 기준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이 수반되고 있다. 주력인 전선 부문은 전력선과 해외 법인 위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에, 엠트론 부문의 구조조정이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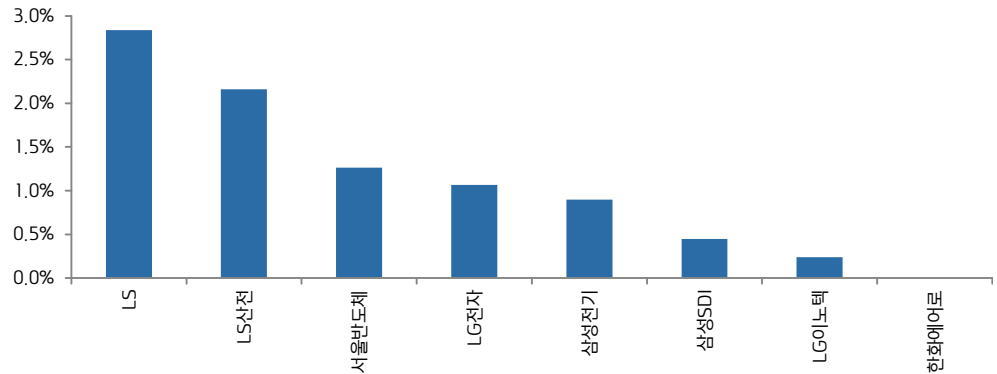
▶LS산전은 배당성향 30%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 왔다.

올해 국내외 설비투자 여건이 악화된 환경에서도 전력기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4% 감소하고, 순이익은 3% 감소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내년에는 융합 사업부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주당배당금은 지난해 1,200원에서 올해 1,100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 주요 업체 예상 배당수익률



자료: 키움증권

전기전자 주요 업체 예상 배당금

종목코드	종목명	주당배당금(원)				EPS	영업이익	12/4일 총가(원)	예상 배당수익률
		2016	2017	2018	2019E	증가율(%) 2019E	증가율(%) 2019E		
066570	LG전자	400	400	750	750	-36.9	-1.0	70,300	1.1%
006400	삼성SDI	1,000	1,000	1,000	1,000	-18.0	-35.4	224,000	0.4%
009150	삼성전기	500	750	1,000	1,000	-4.6	-31.4	111,500	0.9%
011070	LG이노텍	250	250	300	300	20.5	32.4	125,500	0.2%
046890	서울반도체	81	183	284	170	-30.6	-47.6	13,450	1.3%
012450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0	0	0	0	273.6	247.2	38,000	0.0%
006260	LS	1,250	1,250	1,250	1,250	-60.2	-12.8	44,050	2.8%
010120	LS산전	800	1,100	1,200	1,100	-2.5	-14.2	50,900	2.2%

자료: 각 사, 키움증권

투자 의견 및 적용 기준

기업	적용 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추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추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추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추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 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8/10/01~2019/09/30)

매수	중립	매도
93.98%	5.42%	0.60%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